취업은 현실, 동아리는 이상

전환의 문턱 이것만은 해결하자 <9>

대학문화의 산실 동아리

— 전문동아리 지원자 인플레

전공학과를 통한 학문탐구와 함께 '상호간의 만남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아실현의 공간으로서 '제2의 전공'으로 불리어지며 많은 대학인들의 참여속에 대학문화를 주도해왔던 동아리 문화가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의 기류속에 점차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눈에 띄게 감소되는 동아리 회원수, 위축되는 동아리 활동 등에서 쉽게 깨닫게 된다.

동아리 회원수의 경우 지난 91년 신입생은 90% 재학생 50%에 이르던 동아리 활동회원수가 93년도에는 신입생 2천여명 재학생 4천여명으로 전체 재학생수 대비 각각 40%, 25%정도로 급격히 회원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서울·수원캠퍼스 학생처 집계). 이와같은 동아리회원수의 감소현상은 재학생들과 동아리 탈퇴보다는 주로 신입생들의 동아리가입 기피현상이 주된 요인으로 회원수의 감소추세가 몇해 계속 이어질 경우 신입생을 받지 못한 일부동아리들의 해체가 불가피해져 동아리문화의 침체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0년이후 새내기들의 동아리가입기피현상을 감지한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와 각분야 동아리들은 올해초 동아리소개책자 발간,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한 홍보, 각종 동아리들의 개성을 살린 공연활동과 전시, 강좌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내기 모셔오기(?)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몇몇 동아리를 제외하곤 신통한 효력을 보지못한 채 선배들의 잔치로만 그쳐고 만갔다.

"대 4병이라 불렸정도로 몇년째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는 취업전쟁으로 인한 새내기들의 위기의식, 개성과 주관이 뚜렷하고 자유분방한 기질을 지닌 이른바 신세대적인 가치의식의 유행, 예전에는 동아리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요구와 욕구들을 충분히 소화시켜줄만큼 다양하고 활발해진 학과중심의 학회활동등이 새내기들로 하여금 동아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같습니다."서울캠퍼스 동연회장인 이태석(법학3)군은 최근의 동아리문화 침체의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동아리활동을 이성과 감성의 계발을 통한 자기실현의 장이 아닌 단순한 친목 단체나 놀이문화로만 여기는 인식 또한 커다란 장애요인입니다."라고 말한다.

93년 5월 현재 양캠퍼스 학생처에 등록된 동아리는 서울 60개, 수원 63개로 총 1백23개 동아리에서 6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 회원수는 총원을 산출하기 위한 숫자일 뿐 실질적으로 활동이 활발한 회원수는 전체회원수의 약30% 정도로 보는것이 정확하다는 것이 학생처 동아리담당직원의 의견이다. 경계 많게는 1백여명 적게는 10여명의 회원을 가진 동아리라 할지라도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회원수는 더 적어 각 동아리마다 회원부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수부족은 동아리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동아리문화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동아리 가입의 편중화 현상

대학사회에서 점차로 무게를 잃어가고 있는 동아리문화중에서도 새내기들로부터 좀더 심하게 외면을 받고 있는 동아리는 학술·체육·봉사동아리들이다.

봉사동아리는 대학사회에 동아리문화를 정착시켜온 동아리문화의 산실로 대학인들의 사회참여가 극히 제한적이던 지난 60,70년대 대학과 사회를 연결해주던 창구역할을 담당해왔었다. 본교의경우도 65년 '국제연합 학생회(UNSA)', '경희유네스코 학생회(KUSA)'의 창립을 시작으로 67년 '청우회' 69년 '적십자회', 75년 호우회 등이 창립되면서 많은 대학인들의 참여속에 동아리문화를 성숙시켜온 장본인들로 아직도 동아리라면 봉사동아리를 연상할 정도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아리들이다.

그러나 이젠 그것도 옛말이 되어버렸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상록회' '백록회' '청우회' 등 몇몇 봉사동아리들만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 올해초 회원수부족과 활동비비로 자진해산한 서울캠퍼스 봉사동아리 '감초회'를 비롯해 호우회등 대다수의 봉사동아리들이 회원수부족과 봉사활동의 의미퇴색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술동아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80년대초 사회과학동아리의 대명사로 인식되던 '백단학회'(64년 창립)는 새내기들의 외면으로 올해 단 1명의 회원을 입회시킨 가운데 선배회원들의 참여로 근근히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대배달 학생회' '산악부' '빈요연구회'등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동아리들도 이제는 전체회원수 20명 미만의 약소동아리로 전락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동아리들이 회원수부족으로 고전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회원수 과다로 즐거운 고민에빠진 동아리들도 있다. 이들 동아리들은 모두 근년에 창립된 동아리들로 컴퓨터 동아리인 '컴컴'(COM COM), '경영시스템연구회' '게이다(KADA), '경희컴퓨터 연구회' 그리고 영어연구반인 '경희 AFKN 청취회' 'TIME' 'NEWSWEEK Reeding Club', 'SELF' 같은 동아리들은 적게는 50여명, 많게는 2백여명의 회원들을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하고 있다. '컴컴'의 경우 올해에만도 1백40여명의 지원자가 몰려 면접을 통해 40여명을 회원을 뽑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추세는 취업난등의 영향으로 동아리를 통한 단체활동보다는 동아리를 통해 컴퓨터나 영어실력을 향상시켜 취업에 대비하자는 '실속파'들의 증가추세에 따른 것으로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취업난과 그에 따른 변화열기도 동아리를 외면하게되는 요인의 하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체활동 그 자체를 꺼리고 두려워하는 개인주의 풍조가 더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수원캠퍼스 노래패 동아리 '소라산하' 회장인 최성우(기계·2)군은 이렇게 새내기들이 동아리를 기피하는 요인을 분석하며서 "저희 소라산하의 경우 신입생 유치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회과학동아리나 창작동아리들도 지나친 이념성을 경계하면서 다양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모습을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덧붙이다.

동아리활동은 낭비인가?

전공학과를 중심으로 학문연구를 더해가며 지식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학생활의 여러 목적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동아리활동을 통해 풍부한 현실경험을 얻어내고, 단체를 통해 나를 실현해가며 전공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을 더욱 윤택해게 만드는 과정도한 경시해서는 안된다.

졸업후 전로와 취업이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혀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동아리라는 말 자체가 한낱 사치스런 이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우리실태에서 어느 한쪽에 기울기 보다는 서로의 조화를 꾀할줄 아는 지성인의 지혜가 아쉽다.

"무엇인가를 얻기위해 동아리방을 찾아들었지만 만사를 제쳐두고 취업에 대비 전공공부는 물론 컴퓨터, 영어회화 등에만 몰두하는 과친구나 선배들을 볼때면 나 혼자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회의감이 들때가 많아요" '백단학회'의 단 1명뿐인 신입회원 이영근(정경대정영·1)군의 말이다.

(취재부)

◇…한내봉사동아리회 '실속파 동아리' 간에 지난 회원관동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구직난, 동아리활동 기피의 주요인

봉사·학술 퇴조, 컴퓨터·외국어 인기

1. 복지의 '무풍지대' 정책도 오락가락
2. 지방학생의 요람, 기숙사 대부족
3. 공간사용—복주하는 요구, 더이상 수용할 곳이 없다.
4. 교장사 문제—문교부 기준에도 못미치는 인력재원
5. 좌담/상호간의 통심, 곳곳서 행정고백
6. 이공계 대학 실습기계 왜변한가
7. 고양교육수준 대학원 전문교육 아쉽다
8. 도서관—정보기능 취약, 학생들 공부방으로 전락
9. **대학문화의 산실 동아리—입학과 동시 취직걱정 전문동아리 지원자 인플레**
10. 학내연구소 제기능 다하고 있나—간판뿐인 연구소 많아

◇…광고창작동아리 '카피울림'을 찾아서

재치 창조하는 내일의 광고 일꾼

서울캠퍼스 광고창작 동아리 '카피 울림'이 결성된 것은 지난 90년이다.

이것은 일반 대학생들의 광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각종 공모전에서 관련과가 아닌 학생들이 상을 탄 것이 대략 89년부터라는 점과도 관련된다.

'카피 울림'은 92년 정식으로 등록되어 학생회관 5층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회원은 신입회원 20여명을 합쳐 모두 35명정도이다. 한의과, 법과, 생활과 등 다양한 학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신입회원 중에는 93학번 뿐만 아니라 92, 88학번들도 있다.

3년밖에 안된 신생 동아리지만 여러번의 수상경력이 있다. 특히 올해 '제14회 제일기획 대학생 광고대상'에서는 '동양제과 투유요코펫'으로 TV상품광고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의 정기모임외에도 그래픽 디자인, 카피라이터, PD, 세분야로 나누어 수시로 학습을 한다. 광고를 만들 때에는 기획 회의, 제품 분석, 아이디어 회의, 표현·제작의 과정을 거치며 모두 공동작업으로 진행된다.

졸업한 새명의 선배 모두가 광고계에서 일하고 있고 회원들 대부분, 특히 92학번 이상의 학번들이 광고계 진출을 목표로 관련 공부를 한다. 이들 중에는 동아리에 들기전부터 공부를 해오던 이가 상당수 있다. 단순히 광고에 대한 흥미만으로 활동하는 회원들도 상당히 실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본래의 전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취미로 실리겠다고 한다.

'카피 울림'회원들은 먼저 일반인들의 광고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광고가 하나의 예술적 창조성을 지닌 전문직이라는 생각, 광고 자체의 화려함과 매력 그리고 새로운 분야라는 참신성을 가입 이유로 밝혔다.

(염정미 記者)

각광받는 첨단시대 이색동아리

◇…로켓트 연구회 'TUSI' 탐방기

종이로켓에서 우주시대 주역까지

지난 85년 4월 우리나라의 빈약한 우주산업에 디딤돌이 되고자 창단되어 9년째 모델로켓 연구·개발의 길을 걷고 있는 수원캠퍼스 로켓연구회 'TUSI(Time Universe & I)'를 찾았다. 85년 자연과학대학 우주과학과 과내동아리로 출발, 단대동아리를 거쳐 87년에는 전 학생이 참여하는 중앙동아리로 자리를 굳힌 'TUSI'는 '우주시대를 향해 우리나라 로켓연구의 발전을 좇는다'는 취지아래 현재 30명의 인원이 활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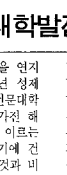
또한 'TUSI'는 작년 10월 한국 항공대학교 주최 '제1회 모델로켓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가을 인하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회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현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초기 금속 로켓에서 91년에는 2단 낙하산 로켓(89cm)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92년에는 재질이 가벼운 종이 로켓(47cm)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인공위성 하나 제대로 쏘아올리지 못하고 비행기 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TUSI'회장의 말처럼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모델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미래의 우주산업을 밝게 전망해 볼 수 있었으며 참된 역군이 되기 위해 주마가편의 노력을 가하는 'TUSI'인이 되기 바란다.

(모상용 記者)

대학발전의 상 공유가 필요



▼올해는 우리학교가 문을 연지 44번째가 되는 해다. 49년 성재학원으로 설립되어 신흥전문대학을 거쳐 경희의 이름을 가진 해가 60년. 그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희의 발전은, 고황골짜기에 건물이 하나씩 놓아져가는 것과 비례해 이룩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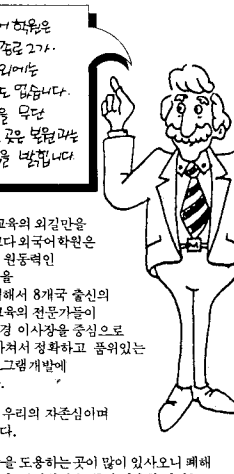
▼개교45주년 기념사업추진위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45년간 이뤄온 경희여사를 계승하면서 50주년을 바라보며 더욱 발전적인 경희를 만들자는 취지로 조직된 것이다. 교수·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따라서 사업계획도 취지에 걸맞게 45주년 기념행사와 50주년 준비사업 두 축으로 꾸려갈 예정이라 한다.

기념행사의 경우 자매교초청이나 학술세미나,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쇄와 미술전시회 등이 기획되어 있고, 기념사업은 50주년 완공을 목표로 강당완공기금모금과 산학협동체제구축, 도서확보운동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당연히 추진위구성은 예체능 관련 교수가 주축을 이룰수 밖에 없고 더욱이 학생의 참여는 배제된 상태이다. 학생이 실질적으로 기념사업이나 행사에 큰 몫을 담당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3자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일 것이다. 축하 행사나 기념사업위주의 일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올런지 의구심이 든다. 학생·교수·직원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 축하공연을 계획하는 것도 물론 큰 의미를 지닐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울러 대학발전에 대한 3자간 인식공유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학교의 발전을 일컫어 '암축혁명'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만큼 짧은 시간동안 커다란 발전을 해온 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숨가쁘게 달려왔고 우리앞에 대망의 2천년대가 또다시 숨가쁘게 뛰어오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숨의 여유를 가지며 좀더 긴 안목으로 우리대학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정미경 記者)

7·9급 공무원
※ 7급(13명), 9급(47명) 합격시킨 전통의 전국학원사상최고, 최고교수보장!!
▶7급 : 93년 7월 시행예정 ▶9급 : 93년 9월시행
•행정학, 기술직, 세무직, 감사직, 전산직, 법원직 강좌개
•강좌 : 기출고해설 기본교재 : 8,000원~10,000원
직급별맞춤 기본교재 : 8,000원~9,000원
•강좌 : 기본이론강좌, 문제풀이기출풀이, 총평 6월 1일
•시간 : 오전반(09~11), 오후반(19 00에서)
•직급별(행정·세무·감사·교육·법원·전산) 전문강좌
•중앙직원(행정·전산·세무·시행)실시예정!!
한국통신·이동통신
※4·6급행정, 통신기술, 전산직·93년 이월포함
•영어, 수학, 사회, 전기기초, 물리 : 각과목 5,000원
•강좌 : 기본이론강좌, 문제풀이기출 : 총평 : 6월 1일
•직급별상문제풀이특강개설(07:30~08:30)
•중앙직원(행정·전산·세무·시행)실시예정!!
공인伸士
•강좌 : 각과목별기본교재 각권 7,000원
기출예상문제풀이 각권 7,000원
•총평 : 1.2차동시준비 기출예상 : 총평 : 6월 1일
오전(10 00~12:00), 야간(19 00~22:00)
鑑定評價士
•강좌 : 각과목별기본서 각권 10,000원
기출예상문제 분석 정기 10,000원
•총평 : 1.2차동시준 각과목별강좌 : 총평 : 6월1일
오전(10 00~13:00), 야간(19 00~22:00)
法務士특강
•강좌 : 각과목별기본서 각권 10,000원
•총평 : 1.2차동시준 각과목별강좌 : 총평 : 6월1일
오전(10 00~13:00), 야간(19 00~22:00)
육사당교재강의학원 /개강 : 6월1일
•서울 : 종로고시학원(817-6002) •서울 : 성북고시학원(472-3799)
•대전 : 대전고시(253-9642) •대구 : 명문고시(423-0050)
•부산 : 명륜고시(903-6880) •인천 : 한국고시(427-6003)
•안양 : 평촌고시 (52-9000) •부천 : 명문고시 (54-1969)
•수원 : 명문고시 (46-6020) •전주 : 명문고시 (73-9020)
•의정부 : 의정부고시(878-9020) •대전 : 명문고시(858-9020)
•인천 : 한국고시(862-9696) •천안 : 명문고시 (54-3300)
•안산 : 명문고시 (57-0017) •광주 : 제일고시 (2-4388)
충남고시, 충북고시, 전북고시, 전남고시, 제주고시, 경북고시, 경남고시, 강원고시, 국민대고시, 성균관고시, 성대고시, 한양대고시, 중앙고시, 세종고시
한국고시학원 공무원학원 동작역(735-0555)
•노량진역앞(817-8366~7)
•노량진역앞(813-6004~5)
삼정고시학원 전화출판 육사당(817-6004·5) 전화(477-7044)
司法試驗·行政高試 고시·승진
법원시무관 입법고시 기술고시
★동종한번 단과반기준6과목 8주 완성
★지방고수단기특급 : 4주 완성
•헌법, 민법총칙, 한국사, 경제, 정보처리론
•민법, 형법, 민소법, 행소법, 경제원론
•행정학, 상법, 행정사, 정치학, 상사사
•국민윤리, 국어, 고시영어, TOEFL
•VOCA, 독일어, 일어, 중국어, 불어
한국교사법행정연수원
신임교사 현대미래로당구(874-3011~2)
외국어강좌
•TOEFL, VOCA, 영어회화, 기본영어, 중한영어
•사회인영어 월1,2,3일(VOCA,기본영어,영어회화)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단일 월 회화
•고시생과목 및 외국어강좌세부(경영학과)
※문의전화 : 월 30일 12:30~20:00
한교외국어학원 /개강 : 6월1일
노량진역앞(812-4144, 812-0678)
교육학+전공특강
※4월 원장교재 영조교사 유학생고시(행정·법학)
•수험교육학(한민서적 : 14,000원)
•모범교육학(신광출판 : 12,000원)
•완전교육학(구광서적 : 15,000원)
•수험간호학(김일출판 : 12,000원)
•간호학예상문제집(김일출판 : 6,000원)
※강 의 : 저자직접강의중
•기본이론강좌, 문제풀이강좌, 총평 : 6월1일
시간 : 월, 화, 수(전주, 야), 목(교보빌딩, 야), 주말반
육사당 전국지사 및 교재구입처
•서울 : 817-6002 •부산 : 88-0204 •대구 255-0012
•대전 : 254-2276 •청주 : 54-4124 •전주 : 82-5660
•안양 : 58-2985 •마산 : 43-6090 •목포 : 74-2932
•수원 : 46-3166 •광주 : 222-8260 •이리 : 51-2001
•인천 : 437-7676 •천안 : 567-6440 •안동 : 54-2288
•김해 : 43-2089 •울산 : 45-1163 •평택 : 44-1294
•의정부 : 43-2210 •포항 : 47-6345 •성남 : 751-9400
•마산 : 45-5554 •순천 : 51-0508 •영주 : 34-3920
•춘천 : 53-8192 •제천 : 43-3289 •강릉 : 43-8508
•진주 : 42-0067 •제주 : 53-0075 •김천 : 53-1074
•광주 : 225-0580 •전주 : 85-3330 •충주 : 44-3410
•부산 : 819-8001 •전주 : 84-6658 •서울 : 817-6003
行政學 原論
행정법 송희정 박사
행정학 강경종 교수
헌법 황창열 교수
경제학 송인권 교수
형법·형소법 서용덕 교수
민법·민소법 박종문 교수
전산학 오기종 교수
TOEFL 윤현우 교수
VOCA 최상광 교수
정보처리론 임준근 교수
민법총칙 박종문 교수
회계학 최재호 교수
※노량진 한교 고시학원에서 저자 직접강의 중 (土, 日)
전산학개론 김인재 외국어교수 교재저서
전자계산일반 정가 10,000원 정가 9,000원
개강 6월 1일(2개월 완성)
한교고시학원
•노량진역 앞(817-8366~9)
•노량진역 앞(813-6004~5)
육사당
동작구 노량동 72-3
(TEL : 824-7246 · FAX : 824-3182)
•서울 종로구 노량진동 72-3
(TEL. 824-7246 · FAX : 824-3182)
•시험정보센터 : 육사당(노량진역앞 : 817-6007 8)



24년간 외국어 교육의 외길만을
걸어온 저희 파고다 외국어 학원은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외국어 능력요원을
육성 배출하기 위해서 8개국 출신의
수많은 외국어 교육의 전문가들이
성심자이신 고인경 이사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시간을 바쳐서 정확하고 품위있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해 왔습니다.

파고다의 이름은 우리의 자존심이며
우리의 보람입니다.

근간 본학원 이름을 도용하는 곳이 많이 있사오니 폐해
없으시기 바라오며, 본학원명을 무단 사용할 시에는
상표법위반으로 중차벌받게 됩니다.
본학원명을 도용하는 곳을 발견하실 경우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고다외국어학원
(종로 275-9880/강남 압구정 515-4020)

외국어 교육 1번지
시사영어사 직영
현대 시사어학학원
英語·日語·中国語
•TOEFL •영어실력기초
•TOEFL L.C. •성문기본영어
•TOEIC •성문종합영어
•AFKN 청취 •영어회화(한국인)
•TIME •영어회화(미국인)
•Voc. 22,000 •일본어 초·중·고급
•영어순해 •일본어회화(일본인)
•영작문연구 •일본어 독해
•실전수험영어 •중국어 초·중·고급
ECC영어회화과정
-정원제·Level Test 실시
-전강사 Native Speakers
일본인 일본어 회화과정
개강 : 매월 1일(수시등록·수강)
파고다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뒤
전화 : 276-0509(代)

美 영어회화
•기초부터 고급(1-6단계) 각단계 8주완성
•1일 2시간 주5일수업
•Level test후 12명 정원제(선착순등록)
•한단 Audio-Visual교육시설
TOEFL 종합과정 ---------- 1일 4시간
미국인영작문 ---------- 1일 2시간
Business Writing ---------- 1일 2시간
동양대학원입시반 ---------- 1일 4시간
코리아헤럴드어학연수원
문의 : 753-9155/직 756-7711/교 483
4호선 명동역 퇴계로 코리아헤럴드빌딩 9층
The Korea Herald 직영
외국어강좌
英語·日語 개강 매월 초
코리아헤럴드사설 TIME 아카데미TOEFL VOCA 22,000 성문종합영어 영어실력기초 AFKN TOEIC L.C TOEFL L.C및 미국어Hearing 생활영어회화 상황별어휘정리 불문법 일본인회화 미국인회화 인디언시험대비회화입시반 일어·불어 중국어 관광통역가이드 일어
외국어 공부 합시다!
코리아헤럴드학원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을지서적옆 757-0419·0420